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6년 07월 04일  
(월요일)

강북신문 6면

◆기고

## 주민의견을 반영한 상가업체 주·정차 허용시간 탄력적 운용 필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한천로 구간에는 많은 상가와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일률적인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이 아니라 차량의 교통 흐름과 상가업체들의 영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가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주민의견 조사내용은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구간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허용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으로 설문대상은 해당 구간에 입주한 상가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 6. 12일 ~ 2016. 6. 18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했다.

해당 설문결과 총 50명 중 16명(32%)이 15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10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15명(30%)이 답했고, 5분이 적정하다는 답

변이 4명(8%), 30분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3건(6%), 주차허용 등 기타 의견 6건(12%) 등이 나왔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 구간 상가업체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설문대상자 62%(31명)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하다는 의견 결과에 따라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해당 구간 상가업체들의 생계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북구청에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청의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의견이 직접 구정에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하는 강북구가 되길 기대한다.



■유인에 강북구의회 의원

동북일보 4면

기고문

## 주민의견 반영한 상가업체 주·정차 시간 탄력적 운용 필요

유인에 의원  
강북구의회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한천로 구간에는 많은 상가와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일률적인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이 아니라 차량의 교통 흐름과 상가업체들의 영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가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주민의견 조사내용은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구간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허



▲ 유인에 의원.

주일동안 진행하였다.

해당 설문결과 총 50명 중 16명(32%)이 15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하였으며, 10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15명(30%)이 답하였고, 5분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4명(8%), 30분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3건(6%), 주차허용 등 기타 의견 6건(12%) 등이 나

왔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 구간 상가업체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설문대상자 62%(31명)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하다는 의견 결과에 따라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해당 구간 상가업체들의 생계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북구청에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구청의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의견이 직접 구정에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하는 강북구가 되길 기대한다.

## 주민의견 반영한 상가업체 주·정차 허용시간 탄력적 운용 필요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한천로 구간에는 많은 상가와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일률적인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이 아니라 차량의 교통 흐름과 상가업체들의 영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에 있어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가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주민의견 조사내용은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구간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허용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으로 설문대상은 해당 구간에 입주한 상가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 6. 12.(일) ~ 2016. 6. 18.(토)까지 일주일동안 진행하였다.

해당 설문결과 총 50명 중 16명(32%)이

15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하였으며, 10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15명(30%)이 답하였고, 5분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4명(8%), 30분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3건(6%), 주차허용 등 기타 의견 6건(12%) 등이 나왔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당 구간 상가업체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설문대상자 62%(31명)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하다는 의견 결과에 따라 주정차 허용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해당 구간 상가업체들의 생계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북구청에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구청의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의견이 직접 구정에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하는 강북구가 되길 기대한다.